

Quant Comment



신현용 Quant
hyunyong.shin@yuantakorea.com

환율, 금리 그리고 실적시즌

급락한 환율로 인한 3분기 실적 우려

-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약 1,422원으로 전분기 대비 -5.4%, '05년 이후 5번에 불과한 급락. 그러나 3분기 KOSPI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치는 6월말 대비 상향
- 또한, 이익 급성장 국면 원화 강세가 동반. 환율이 이익을 만든 것이 아닌 수요 개선이 이익과 원화 가치에 함께 반영된 결과. 이번 이익 성장 국면은 환율의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3분기 실적시즌의 핵심 변수는 환율이 아닌 개별 업황

손꼽아 기다리는 외국인의 복귀

- 7월 이후 개인 순매도 전환, 기관 순매수 둔화로 주요 매수 주체 부재. 외국인의 경우 매도세 둔화되었으며,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대한 KOSPI 민감도 확대. 수급 측면에서 남은 하반기 외국인 수급 방향성이 핵심 변수
- 외국인은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중기 평균 대비 위치에 반응. 백 테스트 결과 6개월 이동평균 하회 시 외국인은 매수우위로 전환되는 경향. 7월 원달러 환율의 6개월 평균 하향 돌파 이후 매도세 둔화 확인
- 미국-한국 10년물 금리차는 외국인 수급에 선행하는 거시 환경 지표. '24년 이후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하와 최근 한국의 선제적인 금리인상으로 미국-한국 금리차 축소. 현재 양국 통화정책이 인상 기조로 수렴하며 추가 축소 여지는 제한적. 외국인의 장기 매도세의 일단락은 가능하나 추세적 매수 전환의 근거 또한 제한적

3분기 실적시즌 실전 전략

- (발표 전) 실적시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의 성과가 확대되는 패턴 반복. 보수적 추정치가 낙관적 추정치로 수렴하는 종목의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음
- (발표 후) 분기말 환율 급락 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종목군 내 순이익 쇼크가 나타날 확률은 48.0%(전체 기간 평균 28.8%). 또한, 순이익 서프라이즈 동반 여부에 따라 성과 차별화. 3분기 환율 급락에 따라 순이익 쇼크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순이익 쇼크에 주의
- (셀온) 서프라이즈 종목의 셀온 확률은 약 38.0%, 서프라이즈 강도가 강할수록 셀온율은 하락. 다만, 130% 이상 고강도 서프라이즈의 셀온은 매수 기회로 활용

급락한 환율로 인한 3분기 실적 우려

지난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 9/9일 약 1,340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 1,389원까지 회복하였다. 9월말까지 현재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약 1,422원으로 전분기 (1,502원) 대비 -5.4% 하락하게 된다. '05년 이후 약 87개 분기 중 분기 평균 환율이 -5% 이상 하락한 기간은 5번에 그친다. 이에 따라, 3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기업의 이익 훼손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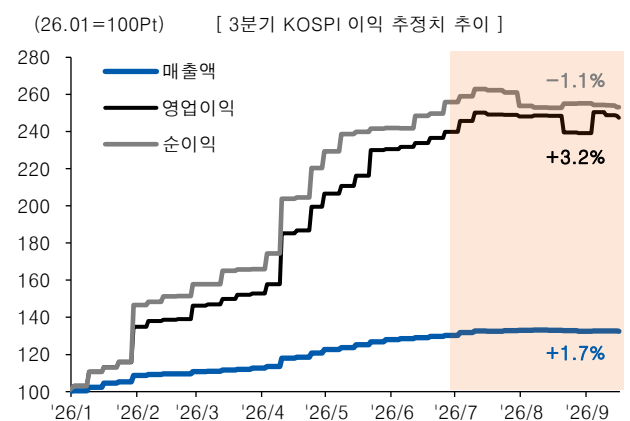
7월 환율 급락 이후 3분기 KOSPI 이익 추정치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 낙폭 대비 건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KOSPI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치는 6월말 대비 각 +1.7%, +3.2% 상향 조정되었다. 순이익은 같은 기간 약 -1.1%의 하향 조정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 인식 시점 환율이 적용되는 매출액과 분기 평균 환율로 계산되는 영업이익과 달리, 순이익은 외화 화폐성 자산 및 부채가 분기말 환율 기준으로 평가되는 영향인 것으로 해석한다. 1,389원 기준 분기말 환율은 약 -10.3% 하락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에 미치는 일시적인 영향력이 더욱 크다.**

그림 1. 7월 이후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3분기 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 확대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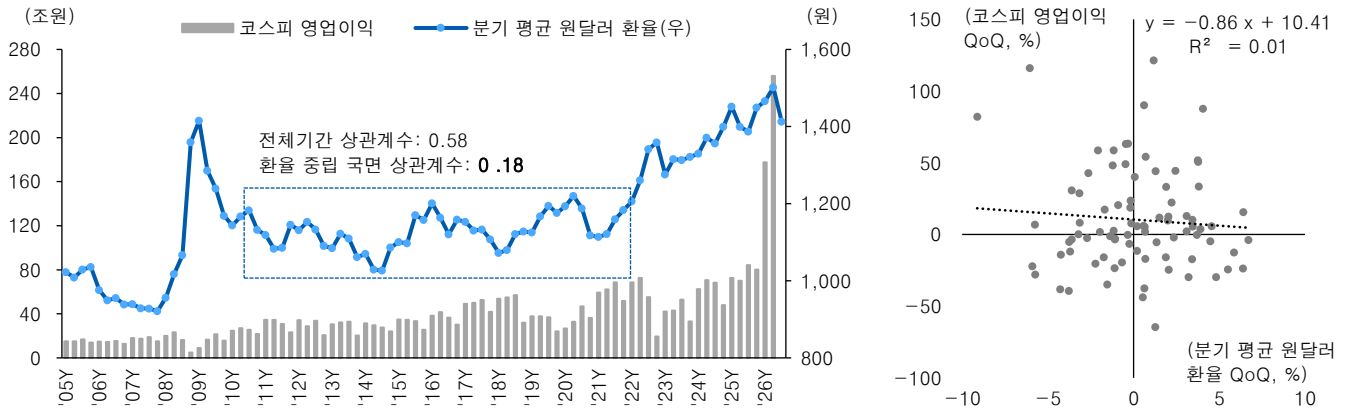
그림 2. 우려와 달리 3분기 KOSPI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은 부재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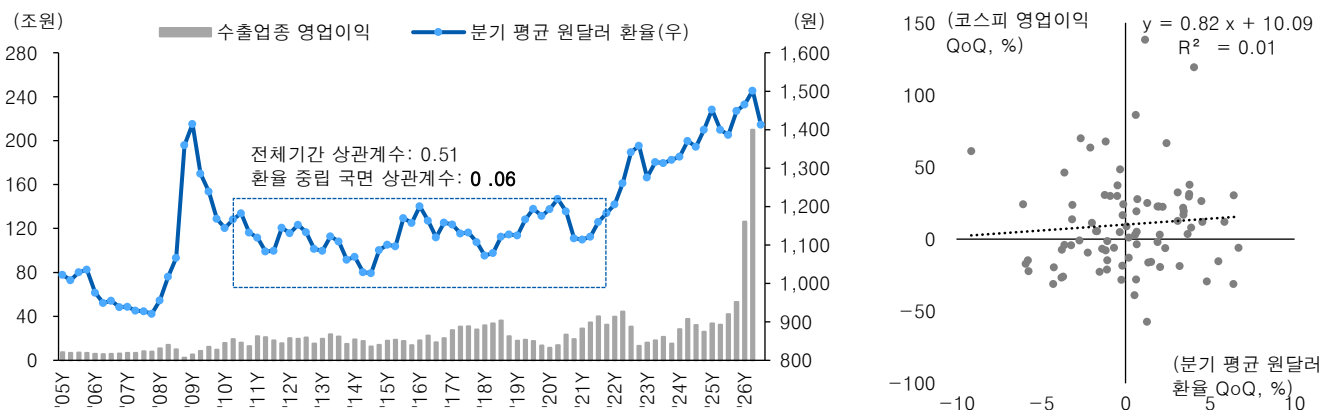
환율의 약세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은 근거는 부족하다. '05년 이후 환율과 KOSPI 영업이익의 장기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약 +0.58로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다만, 해당 기간 환율, 영업이익 모두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린 영향이 크다. 환율의 추세 중립 국면(2010년 3분기 ~2022년 1분기)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약 0.18로 두 변수간 상관성은 크게 약화된다. 대표적인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볼 경우 장기 상관계수는 0.51, 환율의 추세 중립 기간은 0.06으로 원화의 약세가 수출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

그림 3.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과 증시 영업이익의 높은 상관성은 장기간 상승이 지속된 추세의 영향. 환율이 중립 수준에 머물렀던 국면의 상관계수는 0.18 수준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환율 중립 국면 3Q10 ~ 1Q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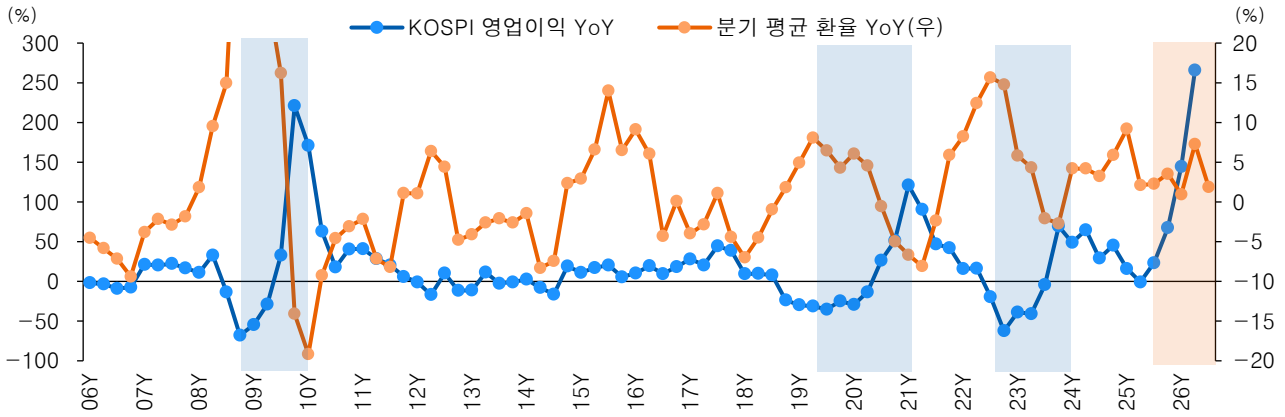
그림 4. 수출 업종 또한 환율 추세 중립 국면의 영업이익과의 상관계수는 0.06 수준으로 환율의 하락이 이익 레벨의 훼손으로 연결되는 근거는 부족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환율 중립 국면 3Q10 ~ 1Q22
주 2) 수출업종: W26 기준 에너지, 화학,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가전, 디스플레이 등

3분기 실적시즌의 최대 변수는 환율이 아닌 개별적인 업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SPI 영업이익의 전년대비 성장률과 분기 평균 환율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살펴보면, 이익 성장이 원화의 강세가 동반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며 기업의 이익이 개선되는 국면이 아닌, 글로벌 수요 및 국내 기업의 수출 개선이 기업이익과 원화 가치에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수출기업의 외화 매출 환산 측면에서는 원화 약세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환율 효과보다 수요와 업황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이익 성장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글로벌 수요 환경보다 업황 개선이 이익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원화 강세를 국내 기업이익의 일률적인 악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림 5. 이익 급성장 국면은 예외 없이 원화 강세와 동행. 다만, 올해는 환율의 완만한 상승 속에서도 이익이 급증, 교역환경, 경기 등이 아닌 업황 주도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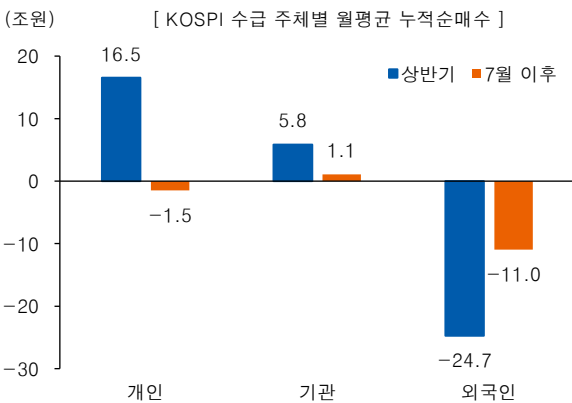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손꼽아 기다리는 외국인의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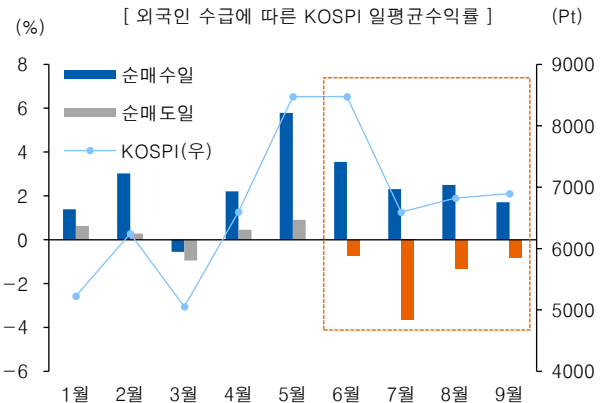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가파른 상승세가 진정된 7월 이후 증시 내 수급 흐름은 급변하였다. KOSPI 강세 국면 주요 매수 주체로 자리매김한 개인의 경우 상반기 월평균 약 +16.5조원 순매수하였지만, 7월 이후 약 -1.5조원 순매도하였다. 기관의 경우 상반기 월평균 +5.8조원, 7월 이후 +1.1조원으로 매수 폭이 둔화되며 증시 내 주요 순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외국인은 상반기 월평균 -24.7조원 순매도, 7월 이후 -11.0조원을 기록하며 매도 폭이 축소되었다. 동시에,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대한 KOSPI의 민감도가 확대되었다**. 상반기 외국인 순매도일 KOSPI 일평균 수익률은 0.1%로, 개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의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 방향성과 무관하게 강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7월 이후 KOSPI는 외국인 순매수일 평균 2.2%, 순매도일 -1.9%로 외국인 매수일 상승, 매도일 하락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약화된 개인의 투자심리, 약화된 기관의 매수세 등 수급 측면에서 남은 하반기 증시 상승 동력으로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핵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 둔화를 넘어 추세적인 매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림 6. 상반기 강세 국면 이후 주체별 수급 흐름이 급변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KOSPI 상승폭이 둔화된 이후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더욱 민감해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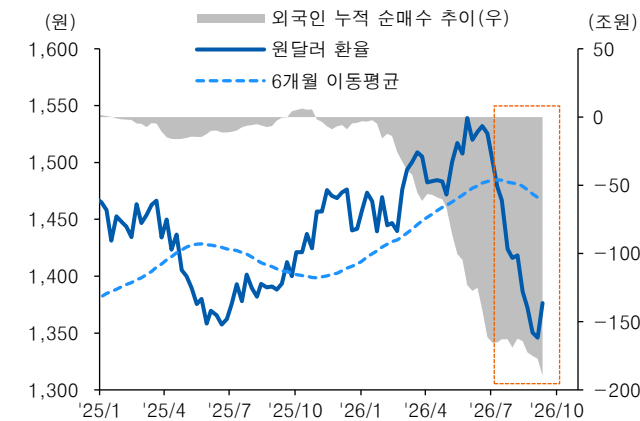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손꼽아 기다리는 외국인의 복귀 - 환율: 환율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다. 지난 7월 원달러 환율이 6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과거 외국인 수급은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중기 평균 대비 상대적 위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05년 이후 백 테스트 결과, 환율이 1,000~1,400원에 위치한 구간별 외국인의 주간 순매수 확률은 50.5~54.8%로 차별성이 제한적인 반면, 환율이 6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구간에서는 61.0%로 매수 우위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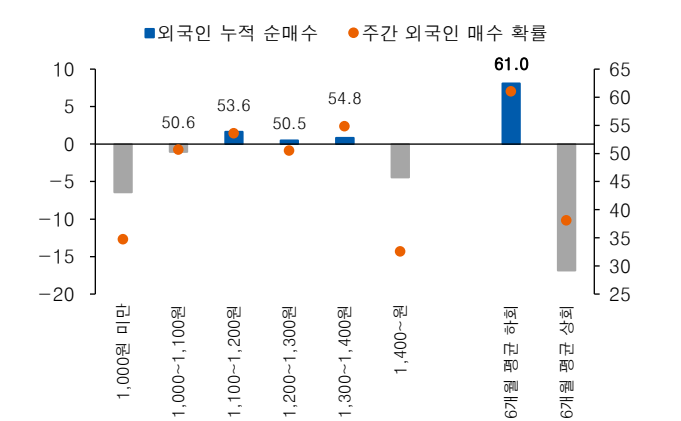
중기 평균을 하향 돌파한 전후의 수급 변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확인된다. '0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8주 이상 6개월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후 하향 돌파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돌파 시점 전후로 매도세가 둔화되고 이후 순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후 6개월 평균을 하회하는 구간 매수세가 지속되었으며, 수급 개선이 일시적인 매도 축소에 그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최근 환율은 단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고 있다. 다만, 중기 평균을 하회하는 범위 내의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외국인 매수 기조를 제약하는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환율 측면의 우호적인 수급 여건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8. 원달러 환율이 6개월 평균을 하회한 7월 외국인의 매도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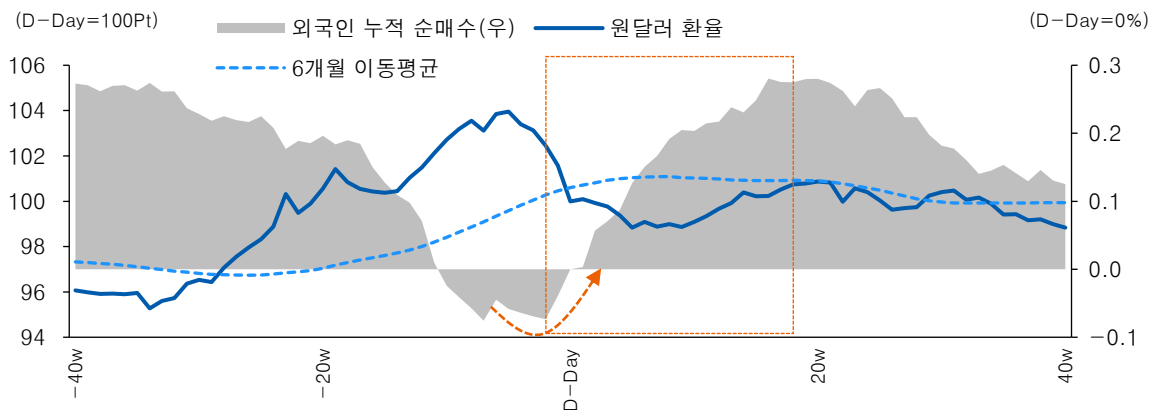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외국인은 환율의 단순 레벨 보다 중기 평균 대비 위치에 민감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05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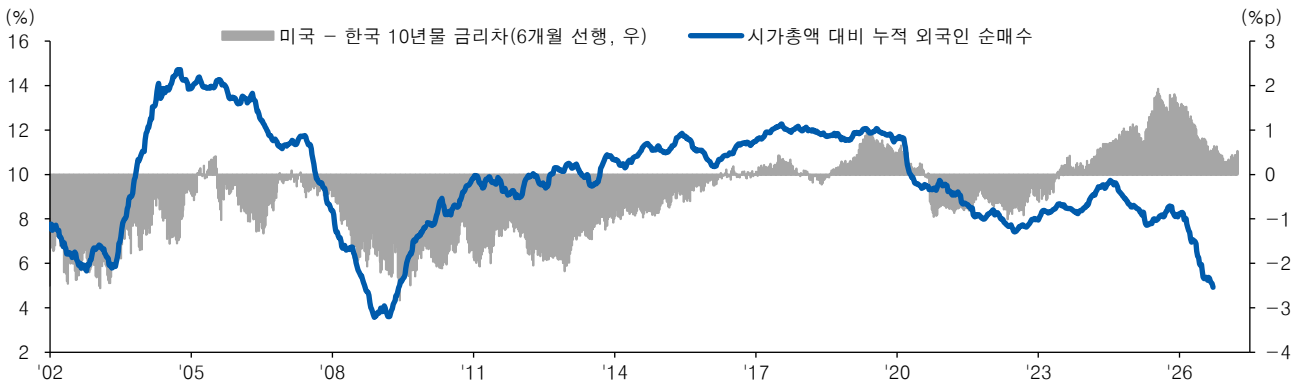
그림 10. '0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8주 이상 6개월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이후 하향 돌파한 사례의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 둔화 및 매수세 전환 확인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05년 이후

2) 손꼽아 기다리는 외국인의 복귀 - 금리: 한편,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한국 10년물 금리차 추이는 외국인 수급에 약 6개월 선행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금리차와 외국인 수급은 글로벌 경기 환경에 함께 반응하는 변수로, 금리차가 외국인 매매를 직접 결정하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기 회복과 위축에 따라 양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달라지는 동시에, 외국인 또한 기업이익 전망과 위험선호 변화에 맞춰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기금리는 성장과 물가 전망, 향후 통화정책 경로와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며, 외국인의 자산배분을 둘러싼 거시 환경을 비추는 온도계인 셈이다. 온도계의 눈금이 날씨의 원인은 아니지만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는 정확히 알려주듯, 금리차는 외국인 수급을 둘러싼 거시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집약해 보여주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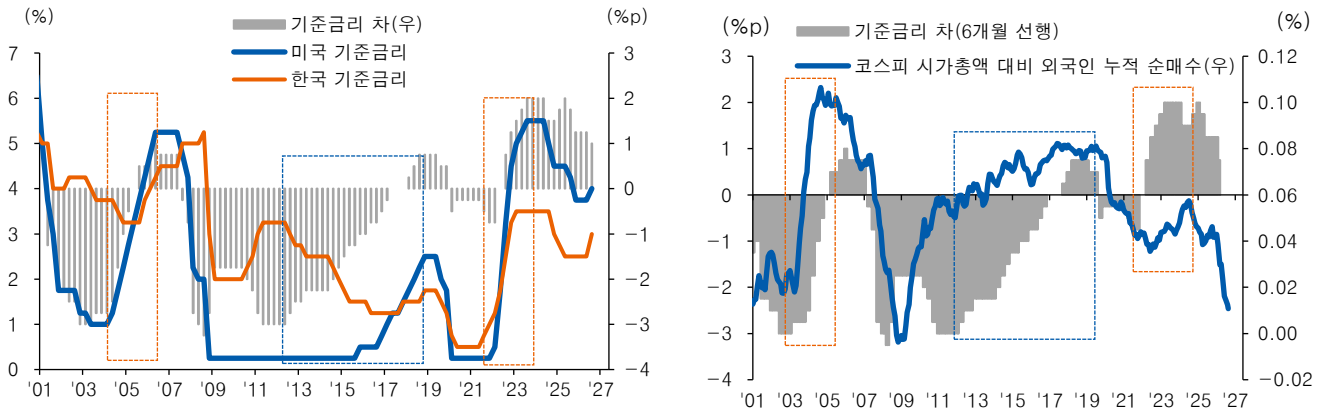
그림 11. 금리차와 외국인 수급은 글로벌 경기 환경에 함께 반응하는 변수로써 동행.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인상/인하기 정책금리의 변동폭은 한국보다 미국이 크게 나타나며, **미국-한국 금리차의 확대와 축소는 대체로 미국 금리가 주도해 왔다**. 글로벌 수요의 중심인 미국이 한국보다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및 이익 사이클 개선으로 이어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한편, '11~15년과 같이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한국이 인하에 나서며 양국 정책금리가 모두 완화 기조에 머문 구간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완만한 유입세를 보였다.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이 아닌, 즉 강한 수요 대신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위험자산 환경을 지지한 결과로, 유입의 강도 역시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 강한 수요가 이끄는 구간에서는 강한 유입이, 유동성이 지지하는 구간에서는 완만한 유입이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국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양국이 함께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인상이 수요 확장의 결과인지 여부에 따라 외국인 수급 반응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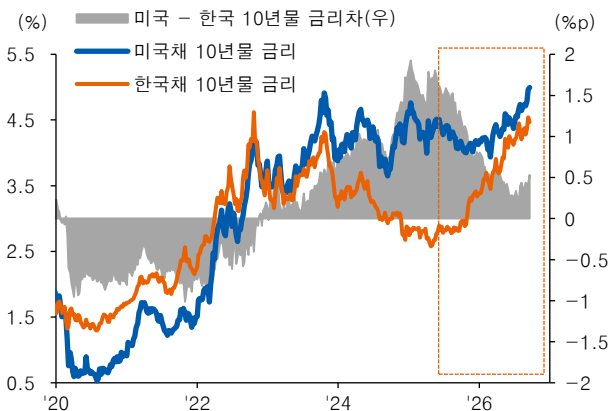
그림 12. 금리 인상/인하기 한국보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더욱 높은 변동폭을 나타내며 미국이 금리차 확대/축소를 주도. 다만,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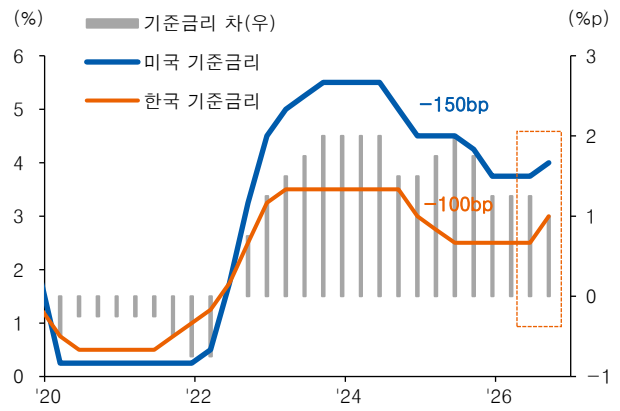
'22년 코로나 이후 긴축국면에 접어들며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역전 및 확대되었다. 이후 '24년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미 연준이 -150bp, 한국은행이 -100bp 인하를 단행하며 금리차는 재차 축소되었고 올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축소 흐름은 더욱 심화되었다. 다만,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이 25bp 인상과 함께 추가 인상 의지를 표명하며 양국 통화정책이 인상 기조로 수렴한 만큼, 금리차의 추가적인 축소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24년 인하국면 이후 양국 통화정책 기조의 미세한 균열이 나타난 비대칭 국면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환경에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이번 인상 사이클은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 및 고물가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미국의 수요 확장이 이끄는 강도 높은 인상 사이클로 보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 환율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우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24년 말부터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락될 수 있으나, 장기 매수 추세로의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제한적이다.

그림 13. '24년 이후 미국-한국 10년물 금리차는 축소되는 흐름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금리 인하기 이후 다시금 금리 인상 국면으로 접어든 미국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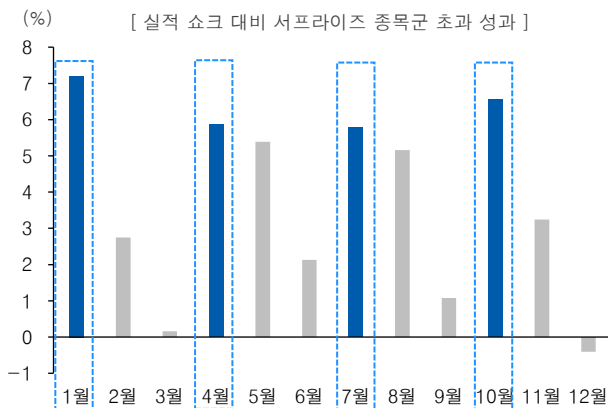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분기 실적시즌 실적 전략

1) **실적발표 전 - 서프라이즈 예상 종목:** 실적시즌이 시작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성과 격차는 뚜렷하게 확대된다(영업이익 기준 실적발표 직전 3개월 평균 추정치 대비). 어닝 쇼크 종목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의 수익률 격차를 월별로 살펴보면 실적시즌이 시작되는 **1월, 4월, 7월, 10월 서프라이즈의 종목군의 성과가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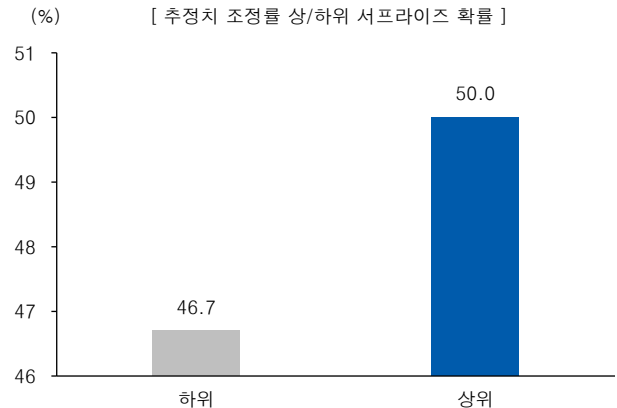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 또한, 미증시 대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분석 논문인 Veenam(2022) – “Earnings Surprises, Mispricing, and the Dispersion Anomaly”에 따르면 최고와 최저 이익 추정치 괴리율이 낮을수록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상승한다.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1) 이익 추정치 최고/최저 조정률 상/하위, 2) 이익 추정치 괴리율 상/하위, 3) 이익 추정치 괴리율 확대/축소 등 총 3가지 조건별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을 분석하였다.

그림 15. 매 실적시즌 서프라이즈 종목의 특수가 발생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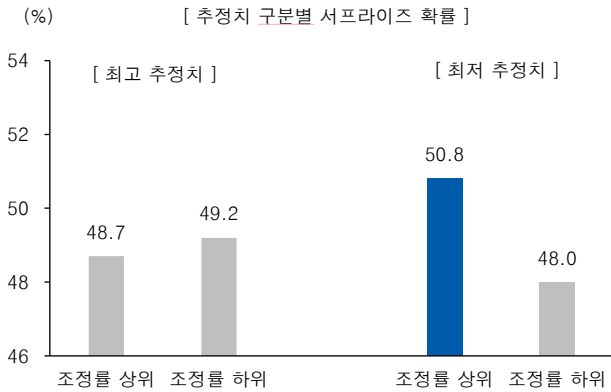
그림 16. 이익 추정치 상향조정이 지속된 종목의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음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EPS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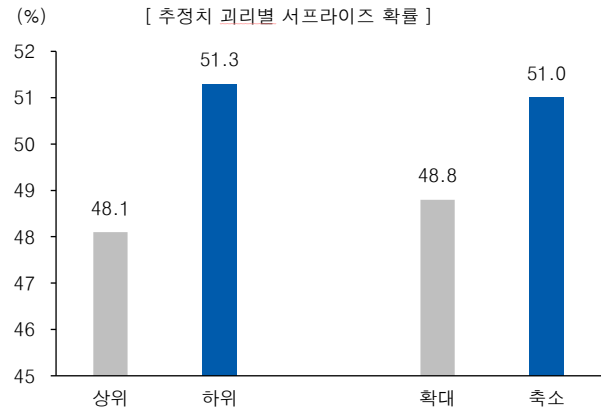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1) 최고 이익 추정치보다 최저의 조정률이 높을수록, 2) 추정치 괴리율이 낮을수록, 3) 괴리율의 크기가 축소될수록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보수적인 추정치가 낙관적인 추정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 종목일수록, 실제 실적이 시장의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군의 경우, 약 58.4%의 Hit Ratio와 +2.3%의 월평균 KOSPI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과 또한 견조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림 15. 최저 추정치의 상향조정이 서프라이즈 예측 확률 개선에 유의미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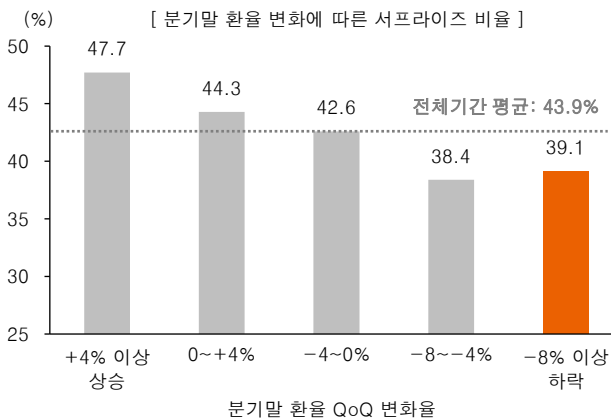
그림 16. 이익 추정치 과리 축소가 진행될수록 서프라이즈 확률 확대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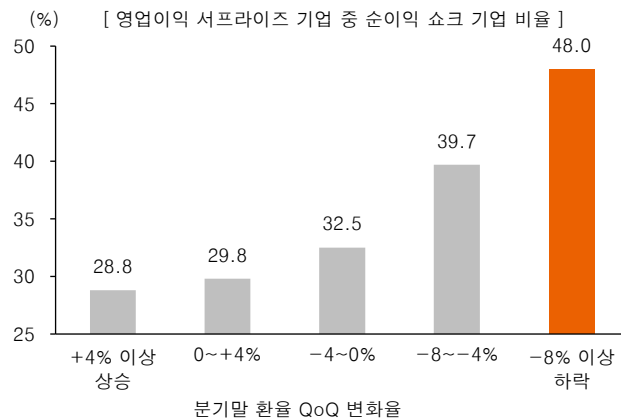
2) 실적발표 후 – 이번 3분기는 순이익 쇼크 주의: 앞서 언급했듯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분기말 원달러 환율 QoQ 변화율에 따른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기업 비율을 살펴보면, -8% 이상 하락 시 약 39.1%로 전체기간 평균(43.9%) 대비 소폭 둔화에 그친다. 다만, 영업이익은 건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순이익 쇼크가 발생하는 기업 수는 급증한다. 분기말 환율이 +4% 이상 상승한 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중 순이익 쇼크가 나타난 비율이 28.8%인데 반해 -8% 이상 하락한 분기의 경우 약 48.0%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영업이익은 건조하지만 순이익 쇼크가 발생하는 기업이 다수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 영업이익 단에서 분기말 환율 급락의 실적시즌 영향력은 제한적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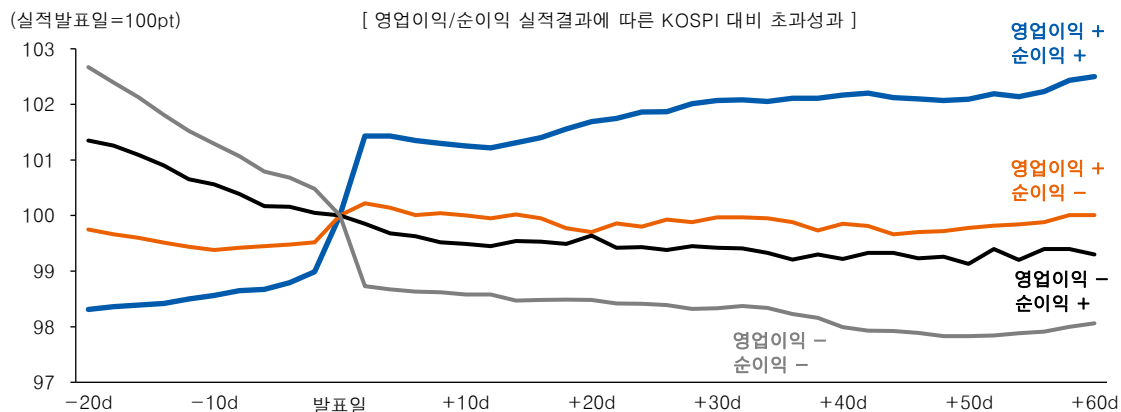
그림 16. 다만, 영업이익은 건조함에도 순이익 쇼크가 발생할 확률이 급증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적시즌 영업이익과 순이익 서프라이즈 및 쇼크에 따른 실적발표 후 주가 추이도 차별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먼저,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우선한다. 예컨대, 영업이익 쇼크가 발생한 종목군의 경우 순이익 서프라이즈/쇼크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의 성과를 하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순이익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안에서도 순이익 동반 여부에 따라 실적발표 이후 60거래일 KOSPI 대비 초과 성과는 +3.43%와 +0.40%로 격차가 확대된다. 실적발표 후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의 서프라이즈가 동반된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영업이익과 순이익 실적결과에 따라 주가 반응이 차별화. 환율 급락에 따라 순이익 쇼크 종목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3분기 유의해야할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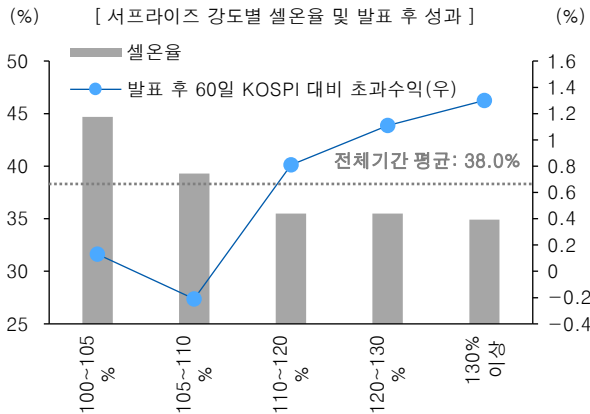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실적발표 전 3개월 추정치 대비 서프라이즈(+) / 쇼크(-)

3) 실적발표 후 - 서프라이즈 강도 및 셀온의 활용: 실적발표 후 서프라이즈 강도에 따라 주가 추이는 상이하다. 서프라이즈 강도 구간별 실적발표 후 60일 KOSPI 대비 초과성과를 살펴보면 100~110% 수준의 약한 서프라이즈 종목군의 초과성과는 0에 가깝다. 반면 110% 이후 서프라이즈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후 성과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한편, 강도 높은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였음에도 “셀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서프라이즈 강도에 따라 셀온이 기회가 되는 종목군이 확인된다. 실적발표 전일 증가 대비 익일 증가를 발표 후 주가 반응으로 정의하고, 해당 기간 KOSPI 성과를 하회하였으면 셀온이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서프라이즈 강도가 강할수록 셀온이 나타날 확률 또한 감소한다. 위 정의에 따른 증시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중 셀온이 발생할 확률은 약 38.0%이다. 100~110% 구간에서는 셀온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서프라이즈 강도에 따라 셀온이 기회로 작용하는 구간이 포착된다. 130% 이상의 고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의 경우 실적발표 이후 셀온이 나타나지 않았던 종목보다 더욱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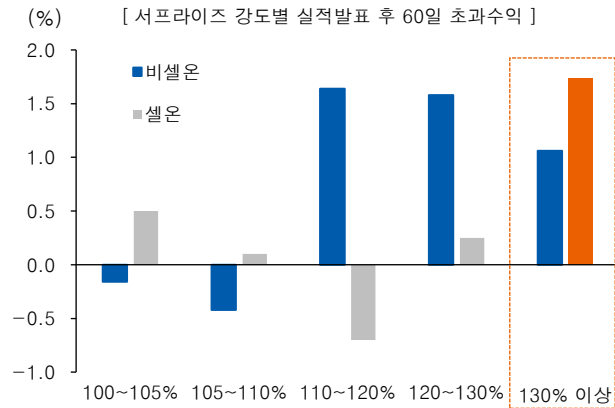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실적발표 전 1)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 상위 종목 선별, 실적발표 후 2) 영업이익 및 순이익 동반 서프라이즈 종목 선별, 3) 서프라이즈 강도 110% 이상 종목 선별, 4) 130% 이상 중 셀온 종목 비중 확대 로드맵에 따른 전략이 3분기 실적시즌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8. 서프라이즈 강도가 높을수록 셀온율은 하락, 성과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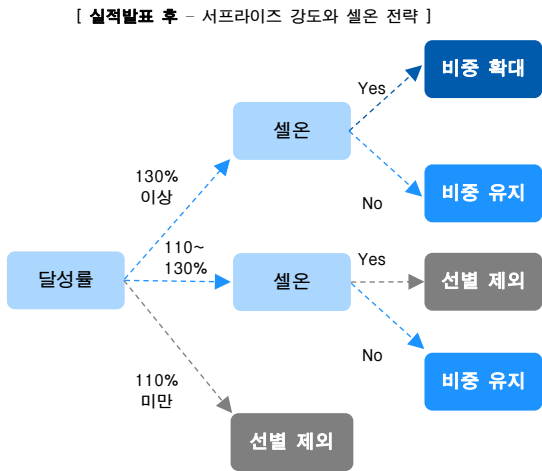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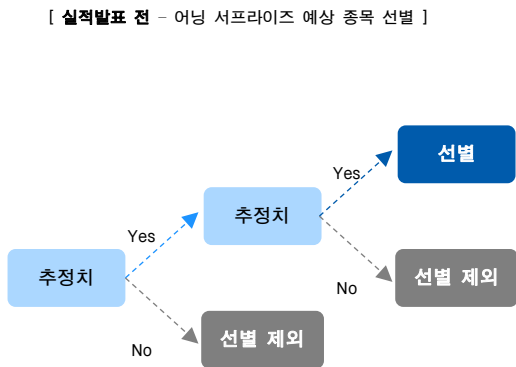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서프라이즈 강도 130% 이상의 경우 셀온은 매수 기회로 작용



자료: FnGuide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실적시즌 실적발표 전, 실적발표 후 실전 전략 로드맵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신현용)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